

# 의용소방대의 선진화를 위한 민관협력 발전방안

최요안

국립중앙도서관

본 연구는 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 소방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보았다. 소방서비스는 오늘날 지역 사회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중에 가장 전문적인 훈련과 능력을 필요로 하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이다. 소방영역에서 대표적인 민관협력기구인 의용소방대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급변하는 재난 환경의 변화와 소방조직의 확대에 따라서 그 역할과 활동에 따른 조직의 재정비와 민관협력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장비와 기구를 사용한 훈련과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가 개발됨에 따른 새로운 전문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는 공공조직과 더욱 밀접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의용소방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향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 과제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설치목적 및 조직이념의 재설정이다. 민간자율 재난관리·안전문화운동 주체로서의 조직이념의 정립하고 21세기의 다양한 사회활동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의무소방원 감축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용대책으로 소방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의용소방대 상주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재난현장활동의 실질적 역할분담을 위한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중립화 방안이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 등 개선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합

리적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역할 및 편성의 효율화이다. 지역특성에 따른 조직역할 및 편성방향의 재설계와 소방활동 단위와 생활권을 고려한 조직편성과 의용소방대 설치권자와 예산부담자 재설정(시·도지사 설치 및 소속대원을 임명하고 필요예산 부담)- 광역단체의 재정상 예산부담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과 조직규모 확대 및 성별구성의 유연성 도모 등 조직구성체계의 개선이다. 다섯째, 조직활동 전문역량 강화방안으로 청년층 참가확대방안 강구 - 지역의 거주자·비자영업자 참가유도,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가확대하고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율조직운영관리체제의 확립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 운영체제의 구축 및 지도부 구성 합리화와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독자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주민친화적 이미지의 강화이다. CI의 도입추진 등 이미지 통일작업 및 주민친화적 복제의 개선과 조직의 존재와 활동내용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행정은 지역시민사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행,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방안과 기존의 NGO단체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소방, 재난, 의용소방대, 민관협력

## I. 서론

1980년대 들어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상이 빈발하면서 지진, 쓰나미, 대형홍수 등 예기치 않은 각종 대형재난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사회 및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형재난을 대응하고 복구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정규인력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방환경은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매년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행정의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시스템 구축과 소방관서와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부족되는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방기관에서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조직인 의용소방대의 의용소방대원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를 포함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 소집되어 소방업무 보조와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37조 및 시·도 조례에 의거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서의 소방업무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 이러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을 포함하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조직으로는 드물게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다. 1958년 의용소방대를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해 온 이래 지금까지의 평가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이 상존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1992년 광역자치소방제도의 도입이후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방력이 부족한 군지역의 소방수요를 일정 부분 의용소방대원이 채워 화재현장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보조를 충실히 실시함으로써 지역에 밀착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화의 개발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원 등으로 역할이 축소되거나 다른 자원봉사조직의 신설, 활동기능 충돌, 지역 내에 유력한 인사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여 오면서 초창기 소방봉사조직 단체원으로서의 순수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압력단체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조직진반에 대한 개편논의는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고 어떤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의용소방대 조직변천과정과 활동영역

### 1. 의용소방대 설치배경 및 역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의용소방대의 효시는 구한말 각 개항지에서 거류민들이 자신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1889년 2월 소방펌프차 1대를 비치한 것이 소방조의 효시이며 1900년대 초반 각 개항지 영사관규칙으로 소방조규칙을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1915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시행하여 관설 소방조직이 설치되었다. 일제·전쟁기의 소방활동으로는 경방단, 소방대, 방공단 등으로 통폐합·제조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및 전쟁기의 중심적 소방활동 담당하였다.

그 후 관설소방조직 설치강화와 의용소방대의 조직화를 기하여 관설소방조직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면서 부족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1954년에 전국적으로 조직화하였으며 소방법 제정 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1958년)하고 지역별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1970년).

### 2. 의용소방대 조직현황 및 운영체계<sup>1)</sup>

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법령은 소방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 설치주체, 대원요건, 운영비용부담주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단위, 명칭, 임용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원의 자격요건 및 근무방법은 지역주민 중 희망자로 구성하여 비상근 조직으로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의해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근무한다.

#### 1) 의용소방대 현황

1) 소방방재청(2007) 부분 인용.

전국 조직으로 16개 시·도에 총 3,192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92,181명이 소속되어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 의용소방대에는 매년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339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표 1〉 의용소방대 대수 및 대원수

구분	대 수				대 원 수			
	계	본 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 대	여성대	지역대
계	3,192	1,545	844	803	92,181	51,716	24,208	16,257
시	863	151	156	556	24,215	6,739	6,248	11,228
읍	483	213	201	69	20,119	10,645	8,030	1,444
면	1,846	1,181	487	178	47,847	34,332	9,930	3,585

〈표 2〉 2006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재해보상비	각종행사	기타
20,932,350	4,152,705	3,910,925	109,488	954,753	3,885,376

## 2)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및 활동현황

의용소방대원은 시지역과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의 경우는 대장,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가 임용하고 있으며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용하고 있으며, 소방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군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용하고 있는 2원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용권 행태로는 의용소방대장 등의 임용을 위한 추천권한이 소방서장과 읍·면장에게 있고 도지사 또는 군수가 임용을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원의 과반수이상 이 찬성을 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6년도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9,599회,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 1,708회, 화재경계근무 16,290회, 교육훈련 35,974회, 화재홍보활동 11,404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의용소방대 설치기준

구분	시지역과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	기타 군지역
설치단위	·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설치	· 읍·면별로 군수가 설치
	· 소방서의 읍에는 여성대 설치. 단, 면지역은 필요시 설치	

구분	시지역과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	기타 군지역
명칭	· ○○소방서 의용소방대	· ○○군○○읍·면의용소방대
임용	· 대장추천, 소방서장 임용	· 대장추천, 군수 임용
	· 대장	· 소방서장 추천, 시도지사 임용
복무감독	· 소방서장	· 군수
예산편성	· 시도(소방서)	· 군수

## ○ 출동 및 활동현황

· '06년도 출동실적: 총 125,501회, 연인원 174만명 동원

구분	화재진압	구조구급	경계근무	교육훈련	안전홍보	기타
회수	9,599	1,708	16,290	35,974	11,404	50,526
인원	117,133	17,514	130,045	981,873	240,371	254,664

## 3. 일본의 의용소방대원 임용실태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본의 소방단은 우리나라의 시정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중으로 특별직(비상근)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의용소방대원은 시장 등에게 설치 및 임용권이 있으며 2003년 4월 1일 기준 3,600여개 소방단에 약 100만명의 소방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진 등 자연재난이 많은 일본의 경우 지역에 밀착한 조직으로 육성 발전되어 왔다.

## III. 환경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문제

### 1. 소방수요에 의한 변화

최근 20년간 소방수요의 증가와 정규소방의 역할증대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수요의 증가는 화재발생건수 436.2%, 소방대상물 397.4%, 건축허가동의 18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정규 소방력의 보강과 의용소방대의 역할감소현상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방서 수는 187%, 소방공무원은 318.9%가 증가한 반면 의용소방대는 의소대 64.3%, 의소대원수 56.9%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수요 증가 및 정규소방 확대에 비해 의용소방대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초에는 화재현장에 직접 참

여하는 단계에서 현재의 역할은 일부 지역대를 제외하고는 필요시 소집지시에 의하여 출동하여 소방서 업무를 보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산업·취업구조의 변화와 사회활동의 제한을 들 수가 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63년도에 31.5%였던 임금근로자비율이 03년도 65.1%로 증가한 반면, 비임금취업자(자영업자 등)는 68.5%에서 34.9%로 감소되었고 고용자 사정에 의해 자유로운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에 많은 애로점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이원화되고 통근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역내에서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사회전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왕성한 현장활동을 요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원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963년도 3.0%에서 2004년도 8.0%로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의 도시거주의 집중으로 도시지역은 젊은 층이 과밀한데 비해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로 청년층 대원확보 곤란 및 대응능력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유동인구의 증가로 현대산업사회 임금근로자는 사업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거주지의 잦은 이동으로 지역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의용소방대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 1) 기본이념 정립미흡과 이미지제고 실패

소방기본법상 의용소방대 설치목적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대의 사회활동을 포괄하고 지역 소방안전환경에 따른 탄력성 있는 활동을 위한 기본이념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정신과 책임감 부족 및 정치활동 관심이다. 지역 방재중심조직 및 민간 안전문화운동 리더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일시적·감상적·영웅심·자혜심 등에서 무계획적 참여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행정 참여를 위한 정치적 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미지제고 수단의 미흡이다. 타 단체 및 시대적 환경에 맞는 조직명칭이 아닌 일제시대에

서 쓰던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 봉사활동의 자긍심 유도기능 부족하다는 점이다<sup>2)</sup>. 세 번째는 이미지개선의 실패이다. 현장활동 Team-Work 강화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한 상징적 캐릭터, 표지장, 노랫말 보급이 미흡하고 동·하복 구분없는 현장활동 작업복 착용으로 제복조직 이미지 형성과 사기진작의 저해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의용소방대의 존재와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받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미흡도 원인이다.

### 2) 조직편성의 문제점

첫번째는 의용소방대 임용권 등의 다원성이다. 시지역과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은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기타 군지역은 읍·면별로 군수가 설치하도록 하고 대장과 대원의 임명도 시·도지사, 군수, 소방서장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조직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표 4>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권한 체계

구 분	대장·부대장·여성대장·지대장	대 원
시 지역	추 천	소 방 서 장
	임 용	시 · 도 지 사
군 지역	추 천	읍 · 면 장
	임 용	군 수

두번째는 소방서단위 또는 읍·면단위로 편성·운영되는 의용소방대를 전국단위 또는 중앙차원의 지원협조 체계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도단위의 협의체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조직되어 의용소방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조직활동과 관련한 홍보·조사·연구 등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담당할 중앙조직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다른 단체와의 다르고 현행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설립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단체로 전국 의용소방대의 지원협조 및 독자적 사업추진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은 '의용군'의 이미지로 주민 친화성이 부족하며 현대 복지산업사회의 자원봉사활동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 3) 관리·운영상 문제점

소방수요 증가 및 의무소방원 감축으로, 정규 소방력을 대체할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결여와 의소대 활동의 단순성을 들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의 60%이상이 농업 및 상업 종사자로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활동의 대부분은 단순 보조활동에 그치고 있고 비전문적 단순업무에 편중된 활동은 참여자들의 창의력 개발과 전문성 확대에 한계가 있고 참여동기의 위축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지역적 활동수요·특성을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소방서장 보조업무 수행으로 타율적 조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운용과 교육훈련 주체의 이원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용소방대 기본경비는 임용권자 소속기관에 편성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시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복무감독·검열·교육훈련의 점검도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군수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어 조직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표 5> 의용소방대원 직업현황

구분	계	농업	어업	상업	건축 토목	축산업	주부	기타
인원(명)	92,181	28,162	1,787	26,251	2,364	1,339	19,278	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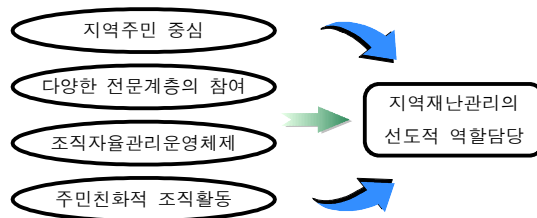
<표 6> 의용소방대원 학력현황

구분	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인원(명)	92,181	10,739	25,757	47,461	7,988	236

## IV. 민관협력 선진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

산업사회의 복잡화·거대화에 따라 개인은 무기력해지고 자아정체감을 상실, 전통적 교육만으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성 확립불가능하다. 자원봉사는 그 사회에서의 다양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정의로운 개인능력을 개발·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참여와 협조는 사회전체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민주주의 사회구성 원리인

참여정신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며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연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 전 국민을 위한 시민교육·복지교육의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본다.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수행하였던 역할을 대신하여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유지시켜 주며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일탈을 막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예방효과도 가질 수 있다.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집단적·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기존 조직을 새롭게 하고, 문제발견은 물론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여 효과적 문제해결의 토대형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지역공동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 중심의 재난안전관리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자율적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식과 공감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조직활동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의용소방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향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 과제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설치목적 및 조직이념의 재설정이다. 민간자율 재난관리·안전문화운동 주체로서의 조직이념의 정립하고 21세기의 다양한 사회활동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의무소방원 감축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용대책으로 소방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의용소방대 상주근무제도 도입하고 재난현장활동의 실질적 역할분담을 위한 신속한 동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중립화 방안이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 등 개선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역할 및 편성의 효율화이다. 지역특성에 따른 조직역할 및 편성방향의 재설계와 소방

활동 단위와 생활권을 고려한 조직편성과 의용소방대 설치권자와 예산부담자 재설정(시·도지사가 설치 및 소속대원을 임명하고 필요예산 부담)- 광역단체의 재정상 예산부담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과 조직규모 확대 및 성별구성의 유연성 도모 등 조직구성체계의 개선이다. 다섯째, 조직활동 전문역량 강화방안으로 청년층 참가확대방안 강구 - 지역외 거주자·비자영업자 참가유도,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가확대하고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율조직운영관리체계의 확립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 운영체계의 구축 및 지도부 구성 합리화와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독자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주민친화적 이미지의 강화이다. CI의 도입추진 등 이미지 통일작업 및 주민친화적 복제의 개선과 조직의 존재와 활동내용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1. 설치목적 및 조직이념의 재설정**

현행법의 설치목적 규정은 소방업무의 보조활동만 강조, 의용소방대의 활동범위는 명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활동의 내용을 설치목적에 포함시켜 설치목적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이념의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 근무하는 주민 등 지역 재난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안전환경에 맞는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호감받고 친밀감 있는 조직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 재난안전관리활동 선도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재현장 소방업무 보조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관리의 예방·대응 및 복구단계 활동의 선도적 역할 담당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조직운영의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대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에 의해 지도부를 구성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해 의사결정 가능한 자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 조직명칭의 재검토**

현재의 의용소방대는 정규군의 보조로써 비정규군을 의미하는 의용군을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21세기의 다양한 사회활동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는 명칭검토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가능하며 현대적 감각에 맞고 소방을 암시하고 봉사 이미지를 제고하며 대원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인식된 119를 포함시켜 브랜드화 가능한 명칭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19 소방봉사대, 민간 119봉사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공모를 통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조직의 담당역할 재설정**

민간자율의 지역재난관리 및 안전문화활동 담당 지역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민간인에 의한 자율적 봉사활동단체, 재난관리의 예방·대응·복구단계에서의 능동적 참여단체, 지역소방기관의 소방행정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단체, 지역민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문화운동 단체,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복지사회활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결합한 자율체제운영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3) 활동범위(내용)의 재설정**

기존의 활동범위를 다양하게 실천적인 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소방관서의 소방업무의 보조(소방관서장의 소집시시에 의해 출동하여 화재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보조, 정규 소방력 부족지역 소방업무 직접담당 - 농어촌지역의 파견소 등에서 대기 및 출동근무 등으로 비도시지역의 소방력 보강)영역에서 한발 진보된 재난예방·대응·복구단계의 관리활동의 중심역할 담당이 필요하다. 지역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예방홍보·순찰경계 활동과 재난초기 신고, 주민대피, 초기대응초치활동 및 복구활동 등으로 주민중심의 대응체계상 구심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고 생활안전 대시민 홍보·교육활동으로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 강구, 안전홍보신문 발간, 홈페이지 운영, 팸플릿 제작 등 시민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대시민 교육활동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예로는 대시민 응급처치 강습교육(의료 전문 대원활용), 안전관리 체험교육 운영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는 활동으로는 지역사회의 화합안정활동 매개체 역할 담당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계층 봉사활동 전개와 음악회·영화회, 기타 축제 등 지역사회 화합 및 안정화 도모를 위한 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표 7> 활동내용의 재설정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예시)	비 고
재난 현장 대응 활동	· 지역소방피견소에 상근대기중 현장출동	· 면단위 지역에서 필수적 고려
	· 자기대기 또는 생업종사중 재난발생시 현장출동	· 읍면단위지역 및 자연재해우려지역에서 필수적 고려
시민안전관리 능력강화운동	·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 가정별 방화안전 교육	· 도시지역에서 고려
사회소의계층 복지증진운동	·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가정 방문활동· 급식, 이발, 청소, 방화점검 등	· 도시지역에서 고려
안전문화정착 시민홍보활동	· 홍보물 전달, 안전관련 전시회, 체육대회 등 행사주관	· 도시지역에서 고려

## 2. 의용소방대 상주근무제도 도입 및 신속한 동원 체계 확립

소방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출장소, 지역대)에 의용소방대 상주근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방력 부족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별로 의소대원 근무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 소방단 운영실태 검토 및 선진운영방안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재난현장활동의 실질적 역할분담을 위한 신속한 동원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및 동보 시스템 활용이다. 지역 및 특수자격 소지자별로 그룹 주소록 관리(Excel 등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리 및 저장: Info Excel 전송프로그램 사용시 바로 통보 가능)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화재 등 재난 사실을 근거리 인원에 통보(인터넷 그룹문자service 활용: Info SMS 등)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3. 의용소방대원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을 개정하여 연합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연합회장(시·도 및 시·군·구)후보자의 소방활동 및 사회봉사실적 등 객관

적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원들의 엄격한 평가에 의해 선출토록 해야 한다.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 제31조제3항 신설하여 연합회장(시·도·시·군·구)후보자는 소방활동 및 사회봉사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 명시하는 방안이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합리적 개정추진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의용소방대연합회장도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국고보조를 받는 유산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대표자와 같이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한다. 개정방향으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 개정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시·도 및 시·군·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바르게살기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등)의 대표자”로 개정한다.

## 4. 조직역할 및 편성의 효율화

도시화정도에 따른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 도심, 도심외곽,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4가지로 지역 구분하고 각 지역별 지역특성·소방력 확충실태 및 주민특성을 분석하여 조직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8> 도시화 정도에 따른 지역특성 비교분석

구 분	지역 특성	소방확충상태	주민 특성
대 도시 도심지역 (특별시, 광역시)	· 대형빌딩이 집적 변화가 형성	· 정규소방 고밀도로 설치됨	· 지역커뮤니티 의식 매우 약함 · 재난에 관해서는 소방에 맡기면 된다는 의식이 많음
도심 외곽지역 (신도시 등)	· 교외형 상업시설과 신혼주택지가 증가하고 있음	· 정규소방 적정 설치됨	· 지역커뮤니티 의식이 약하고 지역활동 저조함
중 소 도시지역 (기존 도시)	· 간선도로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시가지 형성	· 중심부에 거점이 정비되어 있지만 설치밀도는 낮음	· 지역커뮤니티 의식 강하지만 친목활동 중심 · 주민중심 재난방지 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농어촌 지역 (읍·면)	· 넓은 지역에 소취락이 점재함 · 지역외 취업자도 많고 고령층 비율 높음	· 확충정도가 매우 낮음	· 지역커뮤니티 의식 과 상호부조 의식 강함 · 대규모 재해시 고립화에 대한 불안감 있음

지역 재난환경특성 및 소방여건에 따라 조직의 역할을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도록 조직을 편성하는 방안으로 도심지역은 안전홍보교육운동 등 재난관리의 간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농어촌지역은 부족한 소방력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9> 도시화 정도에 따른 지역별 조직역할 및 편성방향

구 분	조직의 역할	조직의 편성방향
대 도시 도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의 간접적·보조적 역할을 주로 담당(대규모 재난 불가피한 경우 제외)</li> <li>안전홍보교육, 사회복지활동, 재난현장 질서유지활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교육, 복지활동 중심으로 조직편성 및 인원배치</li> <li>지역주민, 지역내 사업장 근무자,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도록 편성</li> </ul>
도심외곽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의 간접적·보조적 역할 주로 담당</li> <li>안전문화운동 및 지역사회 화합운동의 중심점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교육·사회활동 중심으로 조직 편성하되 재난현장 출동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편성</li> </ul>
중소도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의 간접적 역할과 직접적 병행 담당</li> <li>안전문화운동 및 지역사회 화합운동의 중심점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근의 출동대기조 편성하되 홍보교육·안전문화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직 편성</li> </ul>
농어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의 직접적 활동 담당</li> <li>화재현장 진압활동, 인명구조 등으로 부족 소방력 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기소 출동대기를 위한 상근조직 편성운영</li> <li>홍보·복지활동조직 부수적 편성</li> </ul>

1) 조직편성과 소방활동 영역의 연계

소방활동 단위와 연계할 수 있는 조직편성이 필요하다. 조직의 설치와 편성은 소방서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소방서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경우 그 시·군 간에는 업무단위의 동일성이 낮기 때문에 생활권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읍·면별 또는 구(區)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편성단위와 조화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소방서)에서 편성하고, 대원입면은 편성주체(설치주체)에서 담당 광역단체장(소방서장)이 임면 조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방서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소방업무와 연계도모가 필요하다

<표 10> 지역별 조직편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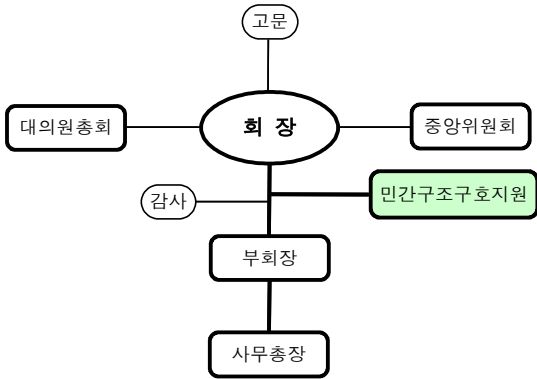
구 분	특별시·광역시 (현행과 같음)	도(道)	
		현 행	개 선
편성단위	소방서단위	소방서·읍·면 단위	시·구(일반시의구)·읍·면 단위
예산편성	광역단체(소방서)	광역단체·기초단체	광역단체
대원입면	광역단체장(소방서장)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조직감독	소방서장	소방서장·군수	소방서장

2) 조직구성체계의 개선

조직규모의 확대 및 성별구성 유연성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 조례로 규정된 정원규정을 폐지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조직 편성이 필요하다. (일본의 인구당 소방단원수 비율 - 시정촌(1만명미만) 약 3.6%, 정령시 약 0.2%) 지역별 여성 확보비율 기준 마련과 계층간의 차별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조직원은 지역특성에 따라 의무적 확보비율 규정하고 도심지역은 35%이상, 농촌지역은 25%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지역 내 사업장 단위의 조직편성 지역 내 근무자 지역재난관리활동 참여기회 부여, 전문가·직능단체 중심단위의 조직편성 잠수협회, 미용사협회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중앙단위 상호지원·협력조직의 편성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단위 또는 읍면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 내 또는 지역간 협력 및 지원체계가 부적절하므로 지역간 협력을 도모하고 정보제공 및 상호지원을 위한 중앙조직 필요하다. 지역 의용소방대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조사·연구 및 홍보, 새로운 사업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과 대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조직편성체계는 지역에서 일정기간(3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연합회장들로 구성하고 조직지도부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의결기관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하고 집행기관은 회장, 고문, 감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분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중앙위원의 일부는 사회 각 분야의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과 조직편성의 구체적 사항은 내부 정관으로 규정, 중앙조직은 법인화하여 독자적 사업수행을 위한 권리능력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림 1> 의용소방대 중앙조직도

<표 11> 중앙조직 지도부 편성계획안

구분	기능	구성방법	인원	
의결기관	대의원총회	· 중앙위원 및 회장의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 ·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 시도연합회장 16명 · 시도별 회원수 비례 할당 대의원 48명	64명
	중앙위원회	· 사업계획 및 정책의 결정 · 임원 및 고문의 선출 · 기타 일반사항의 심의	· 지역위원 16명 · 외부인사 16명	32명
집행기관	회장	· 조직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1명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	· 회장이 지명, 중앙위원회의 승인	2명
	고문	· 조직운영에 관한 조언과 자문	· 회장이 지명, 중앙위원회의 승인	2명
	감사	· 조직운영에 관한 감독	· 회장이 지명, 중앙위원회의 승인	1명
	사무총장	· 조직운영의 실무담당	· 회장이 임명	1명

## 5. 조직활동 전문역량 강화

### 1) 청년층 참가확대 방안강구

지역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 내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참여유도와 직장인·공무원 등 비자영업자(샐러리맨) 참여유도하고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 직장인·공무원 등 샐러리맨도 참가가 허용되어야 한다. 지역 내의 안전문화운동, 사회봉사활동 등 비긴급성 활동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자영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직장 또는 고용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직장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장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하도록 한다. 조직활동에 대하여 협력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일본의 경우 샐러리맨 단위 비율이 약 40%). 또 다른 방안은 여성·대학생 등 참여계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노인봉사활동 등 봉사내용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참여필요와 참여계층의 특성 및 역할에 따라 대원을 등급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 2)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분야별 전문업 종사자·기술 전문가의 적극 영입으로 차별화를 기하고 전문업 종사자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유도가 필요하다.

<표 12> 분야별 전문가의 주요 활동 내용

구분	분야별 전문가	활동내용
소외계층 봉사활동	의사·간호사·약사, 이·미용사 상담·교육, 전기·기계 등	· 소외계층 의료, 이발, 상담, 수선봉사
안전문화 홍보활동	레크레이션, 음악, 미술, 문학, 문화예술, 기획전문가	· 유형별 홍보매체의 제작 · 대시민 홍보
응급처치능력 대시민 교육활동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 응급처치교육 등 대시민 교육활동
재난현장 구조활동	화학·산악·수상전문가	· 특수분야 구조활동 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업종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회활동 모델 및 시행방법의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방안 강구 전문가단체 조직편성 및 직능단체와 유대강화를 통한 지역 사회활동 공감대 형성

### 3)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training)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upgrade)와 더불어 협력과 관련한 지역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소방서는 이러한 교육을 직원과 의소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원들의 개인적인 비용을 줄이고 응급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방 서비스는 따로 떨어져 혼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실, 소방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결국 소방 서비스는 공공 행정의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현장대응능력향상을 위해서는 대원별 역할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장활동 담당대원과 사회봉사활동 담당대원으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장활동 담당대원은 화재진압·인명구조 기초이론 및 실습을 주 내용으로 소방학교 합숙교육 실시, 사회봉사활동담당대원은 사회활동의 기본사항 소집교육 실시,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사항은 전대원 공통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소방학교 또는 지역교육전문기관단체의 위탁교육 또는 연계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표 13> 대원담당분야별 교육내용

구분	현장활동담당대원	사회봉사활동담당대원
기본교육내용	·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사항	
분야별 교육내용	· 화재진압·인명구조 기초이론 및 실습 실습위주 교육 · 활동분야별 현장실무교육	· 사회봉사활동의 이념·가치관 및 기본 활동요령 등
교육형태	· 소방학교 등 전문교육기관 합숙교육	· 자체 소집교육 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6. 자율조직운영관리체제의 확립

1)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체제 구축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대해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시민의 자발적 협력관계에 토대한 민주주의의 확립, 둘째 성숙한 지방분권의 확립, 셋째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조직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자율적인 관리운영조직의 구성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하부조직의 자율적 편성하기 위해서 총무부·방호부·지도부 등 기본조직만 규정하고 하부조직은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구성 유도하고 조직구성은 현장대응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역할이 분담 및 지도부와 일반대원이 화합하고 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의

사결정을 위한 자치기구 구성 일반대원의 의견이 지도부에 전달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2) 지도부 구성절차의 합리화

일반대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도자의 선정절차 확립이 필요하다. 일반대원이 참가하는 선거 등의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감독부서에서는 추천된 지도자의 적격여부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도자 선정절차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결정토록 한다. 조직구성원간 화합방해요소의 제거하기 위해서 간부대원의 정년제도입을 통한 신입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유도, 대원간의 위화감 조성의 요인이 되는 계급장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한 독자적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재난안전환경, 인적구성환경 기타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추진방향과 내용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주민친화적 이미지 강화

1) 이미지 통일을 통한 조직위상 강화

조직이미지통합(CI : Corporate Identity)의 도입추진하기 위해서 심볼마크, 로고, 전용서체 등 조직이미지의 통일화 도모하고 CI는 전문업체 제작의뢰 또는 현상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음향매체의 개발보급으로 단체활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단체 노래·로고송 등 단체활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민들에 대한 시민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 개발 보급이 필요하고 이미지의 지역별 개성 유도수단 도입으로 지역별 조직의 애칭, 이미지캐릭터 등 다양한 개성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하다.

<표 14> CI 개요

3) 박홍순(2006) 토론문 인용.

CI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li> <li>대외적으로는 조직철학 확인으로 조직브랜드가치를 높이고</li> <li>대내적으로는 체계적 시스템 관리로 합리적인 경영도모</li> </ul>
C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의 체계화·활성화·구성원의 사기양양 자부심 고취</li> <li>이미지세어를 통한 장기적인 조직활동기반 구축</li> <li>차별화를 통한 시민의 신뢰감 및 인지도 상승</li> </ul>
CI 기본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볼마크·로고타입·색상체계·전용서체·마크코트</li> </ul>
CI 응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서식류·홍보물·포장류·유니폼</li> </ul>

## 2) 주민친화적 복제의 개선

현행의 작업복 복제를 개선하여 현장 식별수단을 위한 복제도입도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딱딱한 군대이미지로 지역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대원들에게도 체복착용을 꺼리게 하는 현행 작업복 복제를 시대감각에 맞추도록 개선<sup>4)</sup> 간단한 조끼형태 피복으로 개선하여 현장활동 시의 식별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 3) 조직의 존재와 활동내용의 적극적 홍보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으로 지역별 홍보소식지의 발행, 반상회의 참석, 전시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의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단위의 통일적 홍보의 병행도 필요하다. 조직의 존재와 활동목표 등 조직이념과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은 전국연합회 또는 소방방재청에서 통일적으로 홍보 지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방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 소방서비스는 오늘날 지역 사회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중에 가장 전문적인 훈련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장비와 기구를 사용하여 훈련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은 새로운 전문 교육을 계속 받게 된다.

4) 현행 작업복은 동하절기 구분이 없고 군의 전투복 이미지가 강하다

한 사회의 발전과 복지는 정부 혹은 몇 개의 사회단체 또는 소수의 엘리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적극 협력 내지 참여함에 의해 특히, 공헌과 봉사의 자세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신의 개발 자체가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현대사회연구소, 1985: 12). 의용소방대원들과 소방공무원, 시장 그리고 소방 서장은 변화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업무가 지역특성에 맞게 서로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러 행정의 다양한 테크닉(technique)을 이해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소방서장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 업무에 책임을 지며, 예산을 통제하고, 재원들을 관리하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소방서의 특성상 응급 상황에 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일상 업무는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 그 결과 유관 기관들의 기관장들은 소방 서장에게도 다양한 기술이 필요함을 알지 못한다. 지역사회에 공급 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적 가치가 종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서비스는 전통적인 서비스 수준에서 변화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관설 소방대의 주도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하여 의용소방대에게 위임하여 협조를 받고 필요시에만 진압측면에 참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농촌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로 변하여 지역자체 의소대가 봉사활동 하기보다는 수혜적 입장의 인구가 증가되어 의용소방대 구성이 노령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촌에 필요한 진압적인 측면과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업무를 의용소방대장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인구변동에 정확한 예상도 필요하고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문화적 구성을 이해하며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미리 파악해야 할 것이며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움직여가는 데에는 행정기관 이외에도 시민자원봉사자, 주민자생조직, 풀뿌리시민단체(CBO), 각종 전문센터 등 많은 민간주체들이 있다. 이들 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파트너

십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각 자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정은 지역시민사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행,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방안과 기존의 NGO단체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丁요안:** 한성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소방방재청의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7) 현재 경기도 화성소방서 대응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을지대학교와 국립한경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소방정책, 응급구조, 조직문화, 고개만족, 재난관리, 지방행정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저서로는 소방정보와 응급통신(2007)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119소방서비스의 내부고객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2006)”가 있다(fd700613@empal.com).

## <참고문헌>

- ▷ 김미경. 2001. 참여적 거버넌스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구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 김태윤. 2003. 우리나라의 국가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 ▷ 김형욱. 2005. 민관협력에 의한 새로운 주민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방안. 민관협력포럼 제1회지역순회토론회발제문.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http://fire.gyeonggi.kr/>
- ▷ 박천호. 2002.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12): 1-28.
- ▷ 박흥순. 2006. 지역사회에서의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실천. 민관협력포럼 뉴거버넌스창립 1주년기념 포럼발제문.
- ▷ 백기복. 1994. 조직행동연구. 서울: 법문사.
- ▷ 신유근. 1992. 한국의 경영. 서울: 박영사.
- ▷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 ▷ 이윤구. 2004. 재난극복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체제. 한국자원봉사포럼
- ▷ 이정술. 2006. 재난방지와 민관협력. 민관협력포럼 2006년도 1회포럼 발제문.
- ▷ 이종식. 2005. 민주화 이후의 한국시민사회운동과 원리-문제점과 비람직한 방향. NGO연구, 3(1): 127-154.
- ▷ 이창원·최창현. 2006. 새조직론. 서울: 대영문화사.
- ▷ 이학중. 1991. 조직행동론. 서울: 세경사.
- ▷ 조영호·김일숙. 1995. 기업문화와 조직성과. 인사관리연구, 19: 119-145.
- ▷ 최숙주. 2005. 민·관 협력 활성화 노력과 파트너십 강화-곡성군사례를 중심으로. 민관협력포럼 제1회지역순회토론회발제문.
- ▷ 한동우. 2007. 재난관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연구. 국제위기관리학술회의 논문자료집, 100-124
- ▷ 현대사회연구소. 1985.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연구.